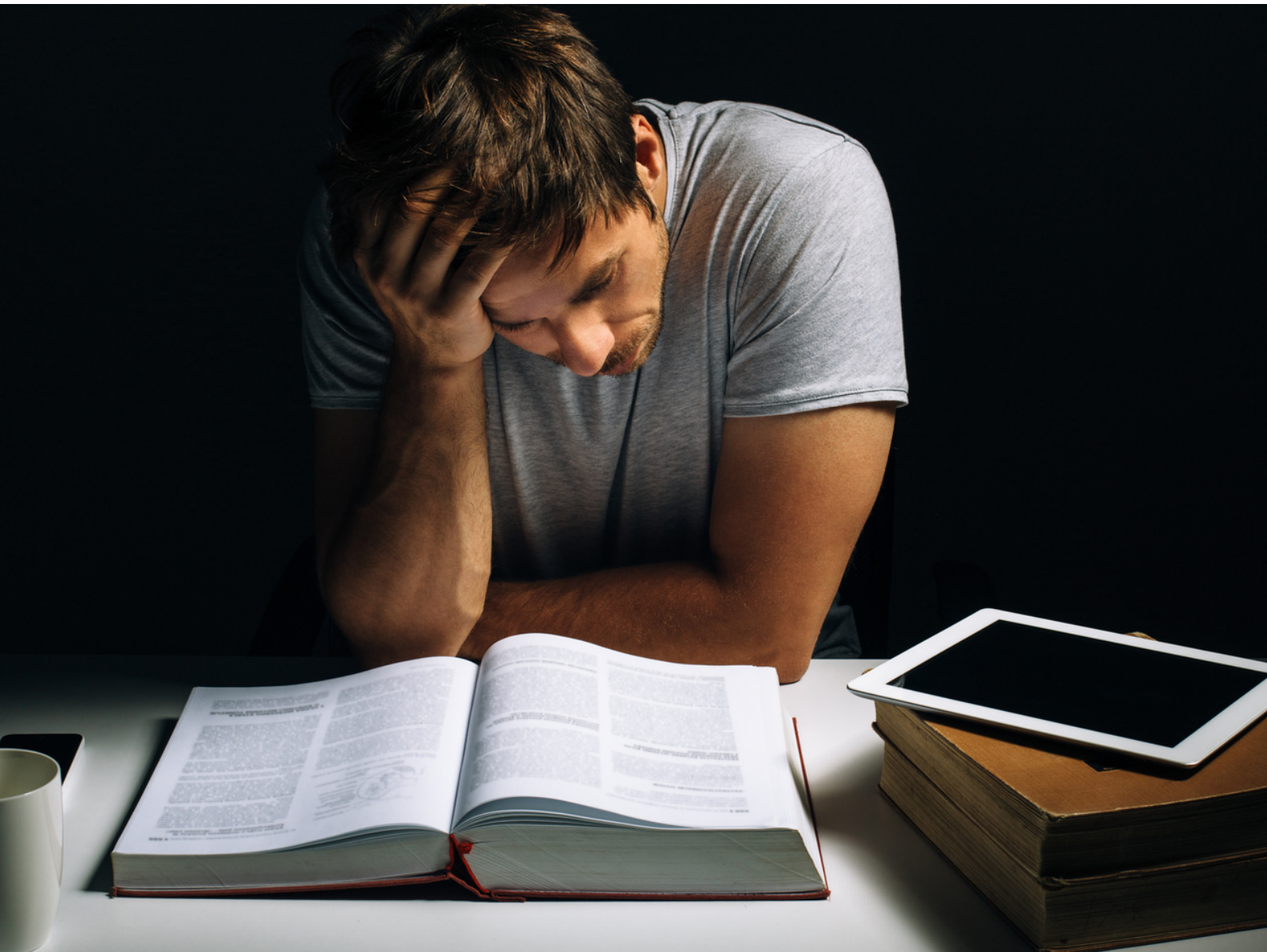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



독자분들께 올리는 글

어느 날 아침 뉴스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교육에 쓴 비용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낮아가고 해외에서는 뱅크런 소식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비단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매일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가고, 이 학원이 끝나면 다른 학원이나 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에 쏟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수능 대입 입시까지 12년간 대입을 위해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조금만 더 참아, 수능 보고 나면 기나긴 시간이 그 힘든 관문이 다 끝날거야' '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학생도, 부모님도 어디 놀러 가는 시간도 미루거나 줄여가며 공부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대로 다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이시거나 혹은 그런 학생을 자녀분으로 두고 계신 학부모님이실 것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거나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나 검색을 통해서 이 책을 찾아주신 분들께 이 책에서 가감 없이 공부학원 없이 말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시험 한달 전쯤부터 제 교과서는 만화책처럼 이미 다른 친구들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제가 집에 가져가는 날보다 제가 집에 가져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집으로 가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빨리 제 교과서에 있는 여러 답들, 본문에 필기한 내용들, 제 공책 등등을 베껴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시험 전에 제가 직접 정리한 프린트물을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 프린트물을 복사해서 다 볼 수 있도록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넌 이렇게 네가 공들여서 만든 것 혼자 보고 싶을텐데 다 보여줘도 괜찮아?"
라고요.
물론 그렇게 묻는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 저도 맨 처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혀 아깝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 교과서를 똑같이 보고, 제 필기를 보고, 제 정리 노트를 보면 분명히 공부가 더 잘 되고 도움은 분명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력을 다해서 만든 자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불안감, 이기심이 1도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공부한 시간과 노력이 그대로 저의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저도 시간이 지나서야 느끼게 되었지만 그 자료는 제가 직접 정리하고 공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도움은 받았겠지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 중간 과정은 그 친구들에게는 빠져있으며 저의 맞춤형 텍스트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본다고 한다고 해도 모두 같은 성적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이에 적는다' 라는 것은, 특히 '직접 적는다' 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종이에 끊임없이 적으면서 무의식 속에 배움의 내용과 정보가 뇌를 통해서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난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라이벌이 누구야?"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누군가를 딱히 부럽다고 생각한 적도, 공부를 할 때에도 누군가를 '라이벌'로 설정하거나 경쟁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적을 잘 받고야 말겠다, 더 잘나고야 말겠다, 내가 1등하고 말거야' 와 같은 생각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의 나와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며, 내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 속 과정의 '나 열심히 했구나 '라는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며 부러워할 것도, 두려워 할 일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순간 결과를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한다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하라' 라는 그 진부한 말도 듣기가 싫증이 날 정도라면 그저 '지금 내가 하는 일에만 진심으로 집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0% 노력형 인간이며 덧붙여 지난 일들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 후회를 하지않는 성격'입니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만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정말 그것에 진심으로 하며, 거기에 정말로 모든 걸 걸고 싶다면 뒤돌아 보았을 때 '-걸' 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을만큼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시험 전 책을 2번만 본다면 저는 최소 3-4배 이상은 더 노력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는 투입하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어떤 방향과 방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아마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조금 덜 공부하지만 더 잘', 성적이 나오고 성취하는 방법,
여기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르고, 소수의 누군가는 아는 것,
이 책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누군가 한 분께라도 저의 이야기가 잃어버린 공부의 세계에서 방향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미리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u>특히 이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u>
-순공 시간이 높다, 공부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 분
-어느 정도 잘하긴 한다, 그런데 막상 시험 때 망치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
-나는 공부를 닥치는대로 한다, 그런데 혼자서 잘 흐트러지는데 그렇다고 학원도 그닥 효과가 없다는 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특정 과목을 감에 의존해서 불안하신 분
-시험이 코앞이라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시험난이도에 의해 1-3등급, 혹은 중간등급-하위등급 편차가 심하신 분
-이제 번아웃이 와서 공부, '해도 안되는 것 아닌가?', '우리 아이는 공부 머리가 없나봐요'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분들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때로는 정체기도 겪어보았으며, 조금 애매한 과목에서는 '감'에 의존을 해가면서 등급과 성적이 특정 구간에서 왔다갔다를 반복하는 현상 등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의지, 그리고 절박한 마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게 추천드립니다.

목차

공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6P
-우리 아이 공부에 대한 오해 (공부 머리가 없어서?)
-남들 좋다는 것 다 해봐야 한단 생각
-문제를 덜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착각

결국 이것들이 문제다----------9P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의외의 진짜 이유

어떻게 하게 만들까?----------11P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신나서 하게 만드는 방법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14P
-꿈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빛이 난다
-시간을 초월하는 집중력과 몰입력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에 대한 유형별 해답----------18P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 오르지 않는 경우
-공부 잘하다가 시험 때만 되면 망치고 유독 실력 발휘 못하는 아이
-공부하는 것을 아예 싫어하는 학생
-이 학원 저 학원 과외 등등을 하지만 효과가 없는 아이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책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는 내신 공부법----------21P
-내 현재 수준 파악과 학습 플랜 세우기
-실제 내신 대비 구체적 플랜 작성 방법
-급할 때에도 OOOO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단 한 문제도 놓치지 않는 최상위 내신 공부비법----------24P
-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봐야할 자료들
-단권화 기법

내신 과목별 공부방법----------26P
-국,영,수 및 그 외 과목
-모든 시험 전,중,후 관리법

목차

고득점을 받는 효율적인 수능공부 시크릿----------28P
-주요 과목별 공부 비법 설명
-모의고사나 시험 및 점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법

매일 자기 주도적 학습 이렇게 하면된다----------33P
-규칙적인 생활 유지 및 시간 관리법
-내일 할 일은 자기 직전까지 무조건 세운다
-플래너 못/안 쓰는 사람을 위한 쉬운 루틴 관리법

나를 위한 멘탈관리 이렇게 하면된다(구체적 방법들)----------37P
-나만의 OOOO를 만들어라 - 3가지 비법들
-내 생활 곳곳에 심어놓기
-내가 매일 했던 OOOO와 OOOO

제대로 공부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는 학습 및 암기법----------43P
-5가지 효과적 효율적 암기 및 학습 방법 공개(외워도 기억 못하는 사람 필독)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47P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당신이 꼭 읽어야 하는 글